

# 뿌옴

KT노동조합 소식지  
2010 Vol.2

# 뿌옴

## [뿌옴]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몸을 솟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 26℃의 행복, 모두가 건강해지는 작은 실천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위 걱정보다 추위 걱정이 앞섭니다.  
성능 좋은 냉방기기 덕분에  
실내는 툰드라 한 복판을 옮겨 온 듯 하니까요.

매년 여름이면 냉방병 소식이 전해지고  
적정실내온도 지키기 운동이 펼쳐지지만  
사람들은 냉방병보다 더위가 더 무서운 모양입니다.  
우리가 '서늘한' 실내 온도에 적응된 사이  
지구 온도는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말이죠.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북극곰은 삶의 터전을 잃고 바다 위를 떠도는 미아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바닷물에 잠겨 국토포기선언을 하고  
전 국민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평균 지표면 온도가 1℃ 높아졌습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소한 진리,  
북극곰의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 여름엔 적정실내온도 지키기에 동참해 보세요.  
지구와 나, 모두가 건강해지는 작은 실천입니다.



# Contents | 2010 Vol.2 |

## ◎ 일하는 것

Interview 특집	KT기업고객부문 이상훈 사장	04
여성만세	'슈퍼 서포터즈' 이상민 조합원	08
KTTU 활동일지	고객회선관리실 집중화 인력재배치 현장조합원 동계유니폼 품평회 장애우시설 '녹향원' 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기념 오찬 행사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장제용품 지원체계 일원화 및 프로세스 개선	12
KTTU 포커스	중고생자녀 무료인터넷 교육 활용기	16
KTTU 클릭	만화로 보는 타임오프	18
노동계 이슈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20

## ◎ 사는 것

KTTU 지방본부탐방기	충북지방본부	22
KTTU 지부탐방기	부산지방본부 통영지부 지부 추천 통영의 맛과 멋	26
KTTU 현장탐방	고객이 아닌 사람을 만납니다_전영민 조합원 26개 섬에 활력을 불어넣다_공태호 조합원	32
Partner	KT그룹노조협의회 KTds노동조합	36
What's up!	소셜 네트워킹의 활용	38

## ◎ 즐기는 것

Space Touch 1	KT 필하모닉오케스트라	40
Space Touch 2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 캠핑의 매력	44
Health	아침식사, 왜 중요한가? 어떻게 먹어야 할까?	48

### KT노동조합 소식지 2010 Vol.2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KT노동조합의 허락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김구현 편집인 |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허진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20 발행일 | 2010년 8월 10일 (격월간) 기획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립인쇄 02-469-7111

# KT기업고객부문 이상훈 사장을 만나다

요즘 어디를 가나 최대 화두는 '상생'이다. 이상훈 KT 기업부문 사장 역시 노동조합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처음으로 성사된 경영진과의 이번 인터뷰에서 이 사장은 특히 기업고객부문은 상생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상훈 사장을 KT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의 허진 실장이 만나보았다.



KT기업고객부문  
이상훈 사장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허진



**Q** 기업고객부문은 '스마트전략'을 내세워 KT의 미래 핵심 성장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들 역시 기업고객부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국내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도시설계 프로젝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상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KT만의 특화된 사업 방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010년 KT 기업고객부문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은 스마트6입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

다. 기업고객부문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 스마트6 전략추진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력을 가다듬으며 준비해 온 기간이었습니다. 전속항진을 통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 자신감을 갖자고 주문해 왔으며, 그 결과 동료들의 노력과 무선부분의 증가로 인해 현재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만족할만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스마트6 전략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 KT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중소기업과 동반자 파트너로서 상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스마트6' 는 Enterprise, SOHO/SMB, Government, Building, Zone, Green의 6대 영역으로 사업 집중 및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KT 기업고객부문의 전략

**Q** 지난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생존을 위해 상생에 나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발표한 3분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노동조합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생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회장님께서도 항상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KT가 가야 할 방향이며 앞으로도 더욱 중소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문과는 달리 기업고객부문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CT시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반면 IT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고객은 MASS 고객과 다르게 고객군별로 각기 원하는 방향과 요구가 다릅니다. 우리는 각 업종별 고객군의 요구와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레고블록을 조립하여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데, 모든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 가지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솔루션을 우리가 가진 것 위에 올려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 KT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중소기업과 동반자 파트너로서 상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고객부문은 다른 부문보다도 상생의 실천이 중요하고 더욱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CT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전통적인 통신시장을 의미

**Q**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적자생존의 시대입니다. 경영진의 마인드에 따라 기업이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등 기업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KT가 일류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대내외적인 방안과 전략은 무엇이며,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 동안 KT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있는 CT시장이 2000년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고,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주력사업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KT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협력관계를 지켜 보며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힘의 우위 과시보다는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첫째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CT시장 외의 다른 영역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서 장악을 해야 합니다. 과거 PSTN을 IP로 전환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mobile, cloud 등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영역 쪽으로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임원과 직원 모두 역량을 확충해야 하고, 이것을 잘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존의 생각을 탈피하여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을 마냥 '열심히'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하게 일하는 시대입니다. 영업부분을 예로 들면, 기존과 같이 키맨을 통한 영업방식은 이제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 레고블럭을 조립하여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데, 키맨 형태의 영업만으로는 이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여 자기 부서 안에서 해결하는 형태의 업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부서의 역량을 어떻게 빨리 결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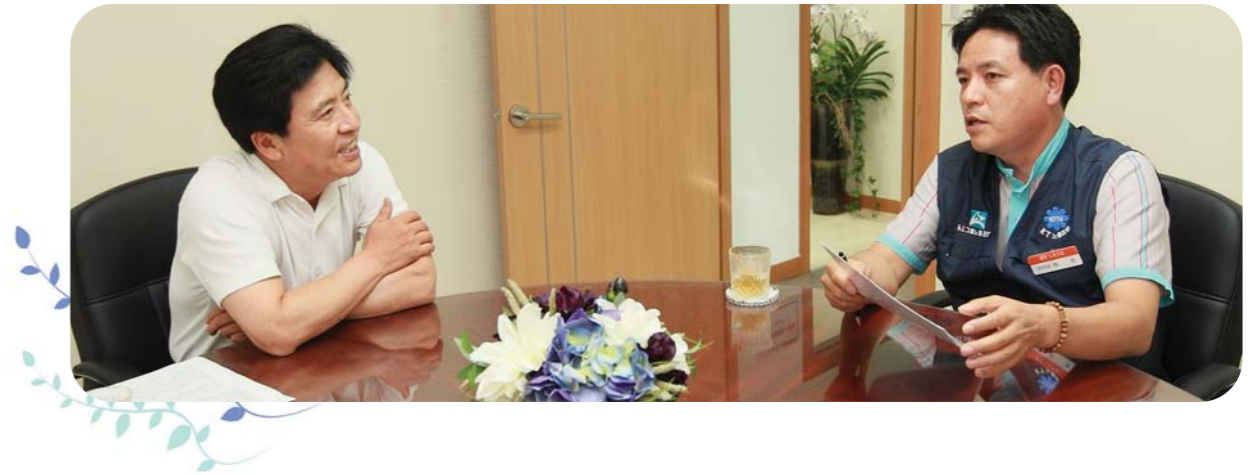
**Q**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3월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경영진의 이해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상훈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KT노사관계의 지향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KT의 노사관계에 있어 다른 어떤 분 보다 더 그 역사의 많은 부분을 같이 해 왔습니다.

KT는 다른 재벌기업과는 달리 1인 절대주주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흑자는 이것이 큰 약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T는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따로 있지 않고, 동반자의 관계로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감출 것이 없고, 투명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협력관계를 지켜보며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힘의 우위 과시 보다는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대내외적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KT 직원들은 회사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업고객부문장으로서 이와 관련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며, 직원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A** 우리에게 회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KT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KT가 고용증대 및 사회기여가 가능하도록 커나가지요 합니다. 회사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성장동력, 성장가능성을 발굴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진 스마트하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KT는 애쓰고 노력은 했지만 위기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KT가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고객부문도 지난 6개월간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KT는 우리가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는 터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회사입니다. KT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회사,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유한양행, 존슨앤존슨

보다 더 존경 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 그리고 KT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 이런 회사를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Q** KT 노동조합은 시대 트렌드에 맞춰 신문형 노보를 폐지하고 책자형 노보로 새롭게 창간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발간하는 책자형 노보를 읽는 KT 구성원들과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KT 노동조합은 이전까지의 모습과 달리 HOST 운동을 통해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그 역량을 주변으로 확장하고 있는 활동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KT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이 반드시 뿌리내리고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KT 사우와 가족 모두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봉사의 묘미요? 안 해 본 사람은 모르죠

## IT 서포터즈 이상민 조합원

| 그녀는 참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한 남편의 부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며, 다문화가정의 친구이고, 노인과 어린이들의 정겨운 선생님이다. 수많은 이름들로 불리며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었던 IT서포터즈팀의 이상민 조합원. 그녀의 헌신적인 서포트는 가족은 물론 고객과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단비처럼 세상 곳곳에 사랑을 뿌려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콕잡속 여성국장이 만나 들어보았다.

- 콕잡속 :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IT서포터즈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만큼 많이 바쁘실듯합니다. 이상민 조합원께서는 92년 KT에 입사, 그동안 줄곧 네트워크와 회계 관련 업무만 하시다가 이제 서포터즈 1년 차가 되셨는데요. 전혀 다른 업무인 IT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상민 : 지난 2007년, IT서포터즈 1기가 출범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경험한 선배들이 적극 추천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고객들을 직접 상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어요.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죠. 실제로 노인 분들과 어린이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등 많은 이들을 만나다보니 제가 가진 역량이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고객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스킬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가진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기부하는 봉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더라고요. KT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IT서포터즈에 참여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적극 권장합니다.

- 콕잡속 : 노인 분들, 다문화 가정의 주부뿐만 아니라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공개 강의도 하신다니요. 회사원들이 퇴근한 후에야 수업이 시작될 테니 귀가도 당연히 늦겠어요.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실 거 같은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상민 : 회사원들 대상 강의는 목요일 하루뿐이라 그나마 다행이죠. (웃음) 그 외 다른 요일에는 새벽 5시 반쯤 일어나 남편 출근과 아이들 등교를 먼저 챙겨요. 그리고 회사로 나가면 8시 정도 됩니다. 교육 장소가 동작이나 사당이어서 오전 9, 10시에 강의가 시작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편이에요. 메일을 확인하고, 강의 자료도 준비하고 교육 장소로 달려가죠. 하루에 두세 타임 정도 각 교육마다 두 시간씩 강의를 해요. 세 타임을 뛰면 목소리가 푹 잡길 때도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면 그날의 교육을 체크하고 전산 자료를 입력해요. 다음 날 교육을 준비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부도 하고 나면 저녁 7~8시에 퇴근합니다. 귀가하면 밥하고 빨래하고……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지요.

- 콕잡속 : 저 역시 직장 다니는 엄마라서 그 애환을 잘 압니다. 지금이야 많이 수월해졌지만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땐, 그야말로 애 말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죠. 요즘은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이니 해서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가정주부와 회사원을 병행하는 게 여전히 녹록치 않더라고요. 이상민 조합원께서는 일하는 엄마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던가요?



서포터즈를 시작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도 구름 위를 걷는 듯이 가벼워졌구요.



이상민 : 아무래도 어느 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이 아니어서 분명 아쉬움은 있어요. 회사에 가면 업무에 몰입하는 게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집에 돌아 가면 또 집안일에 소홀한 것 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회사와 가정에서 모두 만족스러워요.

10살 난 딸과 5살배기 아들이 있는데 큰 아이는 제법 자라서 직장 다니는 엄마를 이해 해주며 스스로 자기 일은 알아서 해요. 기특한 일이죠. 작은 아이도 아직은 천방지축이지만 KT에 다니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KT 광고판을 보면 “엄마가 다니는 회사네! 올레!”하고 소리치기도 하는 걸요.(웃음) 아이들을 친정에서 키워주셔서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도 제겐 큰 행복이에요. 제가 많이 돌봐주지 못하는데도 아프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지요. 남편도 인생의 동반자로서 조력자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빨래도 돌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주는 등,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남편이 같은 KT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화가 많다는 것도 제겐 축복이에요. 서로 직장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공통된 화제도 많고 이해의 폭도 넓죠.

- **곽갑숙** : 일하시면서 얻는 보람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접하니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으시죠?

이상민 : IT서포터즈로 일하면서 생활과 마음가짐이 180도 변했어요. 봉사의 즐거움, 나눔의 행복이라는 유쾌한 바이러스가 제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것이지요.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고요. 그날그날의 강의시간에 절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요. 작은 지식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이 저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죠. 다문화가정의 외국 여성들과 강의 시간을 전후해 수다를 떨기도 한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게다가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시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어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곤 해요. 한국으로 시집은 지 10년이 된 한 중국 여성과는 옆집 아주머니처럼 친구가 되어 버렸지요.(웃음)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이 얼마 전 종강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노인 분들답지 않게 눈이 초롱초롱 빛난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이것저것 배운 것들을 복습하시는 모습이 어느 젊은이들의 학구열 못지 않더라고요.

- **곽갑숙** :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봉사라는 분야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즐겨야 하고, 먼저 수혜자 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뭐랄까, 이상민 조합원에게선 뜨거운 열정이 느껴져요. 그 누구보다도 IT서포터즈에 적합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기 마련인데요. 일하는 엄마이자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민 : 우선, 예전 체계와는 다르게 회사와 노조 모두 시대와 트렌드에 맞게 변화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양측 모두 노력하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신뢰가 갑니다. 누가 앞서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의 조화 속에서 나란히 발걸음을 옮겨 가는 그런 모습이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IT서포터즈팀과 같은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에요. 회사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개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도 배울 수 있는 혜택이 많은 사원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죠. 또한 복지 차원에서 여성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육아 문제가 가장 큰 애로점이에요. 회사에 탁아시설이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 경우에도 기다리다 지쳐서 발길을 돌렸던 경험이 있어요. 직원들이 업무에 올인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어요.

- **곽갑숙** : 저 역시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웃음)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을 여쭙을까요?

이상민 : KT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 조직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회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등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꿈이 하나 있다면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에요. 여행을 워낙에 좋아해서 둘이 퇴직을 하는 시점에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마음껏 세계를 여행하기로 약속했어요. 그전에 국내도 꼼꼼히 돌아볼 계획이에요. 캠핑카를 하나 장만해서 6개월 정도 우리나라를 꼼꼼히 돌아보는 것도 세계 일주 못지않게 즐거울 것 같아요. 지금도 주말이면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 여행을 떠나곤 해요. 밖에 나가면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지요. 남편,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일석이조랄까요?







◎ 동계유니폼 품평회

**고객회선관리실 집중화 인력재배치**  
\_ 강북·대구·충남 등 순회 현장실태조사 후  
인원조정

\_\_\_\_\_ 고객에게 최고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고객회선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7월 21일 부터 23일까지 3일간 '고객회선관리실 인력재배치' 관련 노사합동현장실태조사를 실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정책기획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과 회사 관계자들은 강북지방본부, 대구지방본부, 충남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인력재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집중센터와 유인실의 R&R 확인, 집중센터와 유인실의 인력재배치 적정성 확인,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실사 전 ▲집중센터(571명) ▲유인실(742명) ▲ITE(330명)로 분류했던 1,643명의 인력이 ▲집중센터(572명) ▲유인실(771명) ▲ITE(300명)로 조정되었다.

고객회선관리실은 이번엔 집중센터가 설치되면서 전국 집중센터 42개, 유인실 312개로 구성되었으며, 고객회선관리실은 모두 유인실화되었다. 현장실사의 인력산출 기준은 ▲일일 평균 점퍼작업(신규·철거·고장) 30건 이하 1인, 50건

당 1인 추가 ▲MDF 길이 35M 이상 또는 MDF 2열 이상 시 1인 추가(단, 2인 이하 경우 적용) ▲산재자가 근무하는 경우 1인 추가 등이다.

현장실태조사에 참여한 홍정성 정책1국장은 "노사는 실태조사 후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필요한 경우 인력을 재산출할 것 ▲MDF길이 35M 이상 또는MDF 2열 이상시 1인 추가(단, 2인 이하 경우 적용)MDF관련 유인 고객회선관리실 인원 22명 추가 ▲산재자 관련 유인 고객회선관리실 7명 추가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실사와 근거자료들을 수집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조합원 동계유니폼 품평회 개최 및 지급 계획**  
\_ 3번의 품평회와 여론 수렴과정 거쳐 결정

\_\_\_\_\_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21부터 6월 29일까지 3회에 걸쳐 동계유니폼에 대한 품평회를 열었다. 현장조합원 선호도조사 및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근무복·작업복·방한복·창구여직원복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했다.

이번 동계유니폼은 기업과 직종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성,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능성과 안정성, 감각적이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으로 고객서비스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심미성을 한층 강조하였다.

한편, 7월 13일에는 현장직원 유니폼 지급기준 개선(안)을 공지했다. 보완사항으로 ▲인력 재배치에 관련 반영: 집중운용센터 기술TFT, 지역운용팀, SHOW운용팀 등 ▲조합원 의견수렴 사항 반영 : 법인단 기술컨설팅팀, 작업복, 근무복 품목변경 등 ▲동계유니폼 개선관련 품목변경(작업복 착용자 점퍼지급, 근무복 착용자 점퍼·모자 지급, 여직원복 착용자 가디건 추가 등)이 조정되었다.

또한 ▲디자인 개선년도 및 신규전입직원의 경우 작업복 A·B 와 근무복A는 신규복종 적용, ▲디자인 개선년도에는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신발류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철저한 A/S 처리를 통해 근무여건에 적합하고, 몸에 맞는 유니폼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니폼으로 고객과의 만남을 보다 산뜻하게 준비함으로써 개개인이 기업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장애우시설 '녹향원' 찾아 불벌더위 속 봉사활동**  
\_ 감자 캐고, 고추밭 일구고, 생필품 전달

\_\_\_\_\_ 노동조합은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인근의 정신지체장애우 복지시설 녹향원을 방문하여 생활용품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노동조합은 일회적인 지원과 단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봉사를 지향한다. 이에 매년 녹향원을 꾸준히 방문하여 일손을 거두고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어 정을 나누고 있다. 이번에도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열성으로 고추밭과 감자밭에서 일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잡초가 무성한 감자밭을 부지런히 낫질로 말끔하게 정리하고, 제초기로 감자밭 주변의 잡초까지 깨끗이 제거했다. 이 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원생들의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녹향원 운영자금으로도 쓰다니 더욱 보람이 컸다. 녹향원 원장은 "폭염 속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주신 덕분에 텃밭이 환해졌다. 생필품까지 풍성하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 동계유니폼 품평회



◎ 정신지체장애우 복지시설 녹향원 봉사활동

**노동조합, 호스트운동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기념 오찬' 행사 개최**

\_\_\_\_\_ 노동조합은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 분당 본사 21층 회의실에서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 기념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을 격려하고,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을 받는 소년소녀가장을 대표해 청소년 6명과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KT 석호익 부회장 및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이영훈 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구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과 미래를 품은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강조하며,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호스트운동을 통해 사회 곳곳에 조합원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성태 국회의원은 "기업의 후원도 감사하지만, KT노동조합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에 앞장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며 "KT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소외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인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소년소녀가장들은 "한층 용기를 얻고 더 큰 비전을 가지게 다지게 됐다."며, "관심과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 활동은 노동조합의 호스트운동 중

하나로, 총 52명의 우수한 소년소녀가장을 추천 받아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현재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 외에도 장학사업,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터넷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 및 무상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접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인재를 육성하여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다.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실시  
\_ 타임오프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

\_\_\_\_\_ 유급 노조 전임자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가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노동조합은 7월 8일과 14일 1·2차에 걸쳐,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타임오프 관련 중앙상무집행위원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정명아 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 1차 교육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의 관련, 최대 쟁점이 된 타임오프 매뉴얼의 법적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오늘 받은 교육으로 노동부의 정책 방향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노조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



◎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 기념오찬



◎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실시

◎ 장제용품 주요 변경 내용

■ 제도 개선 전·후 주제/방법

구분	개선 전(주제/방법)	개선 후(주제/방법)	비고
신청	장제용품 근조화환 근조기 본인, 동료/온라인(KT LPS) 본인, 동료/유선(1588-0115)	본인, 동료 신청가능 본인, 동료/유선 신청	(유선 및 온라인 신청시 중복신청 발생, 유선으로 신청)
배송	장제용품 근조화환 본인, 동료	조화업체(익스델)	배송통합 (업체)
정산	근조기 장제용품 근조화환 KT 본사(월1회) KT 현업(소속기관)	KT 본사(월1회)	일괄정산 (본사)

■ 제도 변경에 따른 주제별 역할/임무

구분	역할/임무	비고
개인(사원)	신청 : 유선 근조기 반납 : 사용 후 본인 직접 반납	대리신청 가능
담당(지사)	장제용품 재고관리/구매요청(본사) 경비실 상시보관 조치(최소 3인분)	관리대장 결재(월1회)
담당(본사)	일괄 대금정산(조화, 장제용품 등)	월 1회
경비실(지사)	업체 지급요청서 배송요청서 확인 후 지급 상시 적정수량 확보(최소 3인분)	상시 지급체계 유지
익스델(전보)	조화업체에 배송요청 및 지급완료 처리	업체/KT 배송구분
조화업체	배송 실시(접수후 3시간 이내) 배송결과 통보(익스델)	당일접수

와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전임자임금금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에 열린 2차 교육은 법무법인 '한울'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1차 교육에 이어 노동계 최대 현안인 타임오프에 대한 쟁점들을 심도 깊게 분석 강 의했다.

이 변호사는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금지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시작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법률쟁점을 설명 하면서 "향후 기업 측이 부당한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노조가 법제도의 행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7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타임오프 제도시행에 따른 교섭쟁점 및 노사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차완규 정책기획실장과 전명균 법규국장은 KT노동조합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문점을 해소하여, 통괄 정리했다.

지난 2009년 5월 단체협약 체결로 2011년 6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을 앞둔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타임오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다.

**장제용품 지원체계 일원화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  
\_ 조합원 이용편의 및 만족도 향상**

\_\_\_\_\_ 노동조합과 회사는 장제용품 서비스에 대해 지원 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10년 6월 1부터 새로운 장제용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조합원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지고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주요 변경 내용은

- ▲장제용품 배송체계 일원화 : 본인,동료/조화업체 → 조화업체
- ▲장제용품/근조화환 정산 통합 : 본사, 현장 → 본사
- ▲장제용품 구성 품목 수량 확대(접시 大 130개, 100인 기준)
- ▲접수시간 연장 : 평일 08:00~20:00(주말 및 공휴일은 기존과 같은 09:00~18:00)



# ‘교육’과 ‘가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KT 노동조합은 HOST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조합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우수한 콘텐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45% 정도의 조합원 자녀중 두 주인공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다.

## 자발적 학습패턴으로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 천안 대흥고등학교 1학년 안대윤 학생

“성적이 꽤 올랐어요. 내용이 알차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 4월 ‘KT edui’를 시작한 후, 다니던 학원도 그만둘 정도로 대윤이는 인터넷 강의에 푹 빠졌다. 학교수업과 진도를 맞춰 스스로 예습, 복습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 부담도 안 되고 편해서 집중이 잘된다고. 학원은 오가는 시간도 아깝고 한 번 설명하면 끝이라 놓치는 부분도 생기지만, 인터넷 강의는 필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윤이는 예전에 MegaTV, 쿡TV, EBS 등의 강의를 접한 적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를 보진 못했다고 말한다. “특별한 일 없으면 거

의 매일 평균 1~2시간 정도 챙겨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시작은 아버지의 권유였지만, 성적 오르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붙었다. 대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 대윤이는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과목은 자주 청취하는데 과목별 선생님이 요점을 그야말로 콕콕 집어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따로 링크되어 있는 문제집을, 시험기간이 되면 단원별로 뽑아놓고 더 집중해서 수강한 덕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적도 등수도 올라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대윤이의 평가는 한 마디로 ‘매우 만족’이다.

“아버지가 KT에서 근무하시니까 이런 좋은 강의도 무료로 듣게 되네요.” 대윤이는 늘 자신을 믿고 맡겨주는 부모님이 고맙고 든든하다. 특히 어느새 훌쩍 자라 키도 비슷해진 아들의 말을 늘 진심으로 경청하고, 주말이면 함께 자전거를 타러 다니다보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각별하다.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단란하고 화목한 분위기, 마음이 흐뭇해진다.

고등콘텐츠 : <http://www.ktedui.com>  
문의전화 : 1577-8558(KTedui)

충남지방본부 충남법인사업단 천안법인지부  
법인사업3팀 안명준 조합원 자녀



“매일 평균 1~2시간 정도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시작은 아버지 권유였지만, 성적 오르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붙었어요”



## 아버지 관심 덕분에 공부에 흥미 붙였죠.

### 인천 연수중학교 1학년 신창영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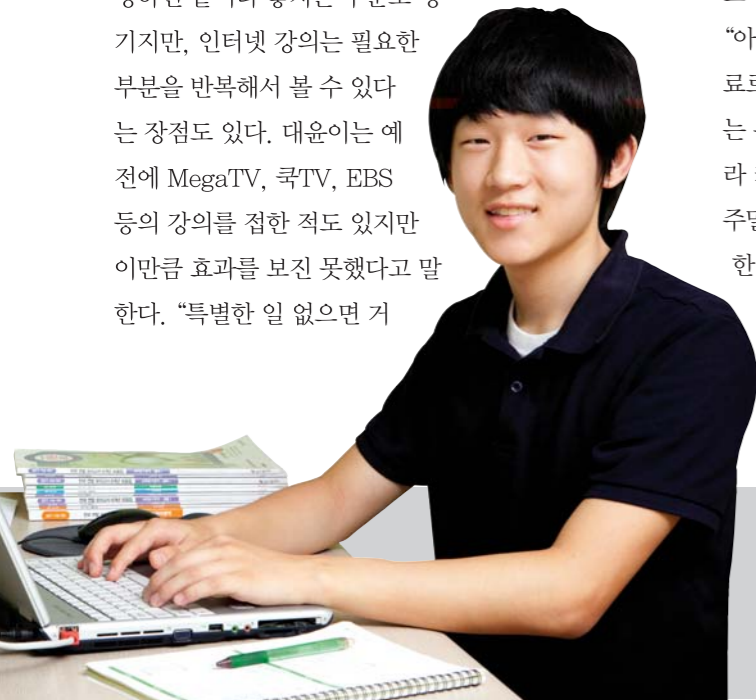
창영이네 집 현관을 들어서자 오른쪽 벽에 붙은 현황판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인터넷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어떤 패턴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용도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잠시 창영이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라며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을 보인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학원에 비해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다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어 좋단다. “제가 사회과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중간고사 때보다 성적이 20점이나 높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꾸준히 공부한 과목들은 대체로 크진 않지만 성적이 조금씩은 올랐다고 자랑한다. 시험 전에 공을 들여 개념 확인과 반복 학습에 집중한 덕택이다.

창영이의 아버지인 신석진 조합원은 “학원공부

는 자발적 학습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다 보니 학업수준이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인터넷 강의가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면서 “스스로 학습법을 터득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아이의 학습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심과 애정이 배가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아버지요? 가끔은 스트레스도 주시지만 친구 같을 때가 많아요. 밤마다 줄넘기도 같이 하고 시골에 가끔 가는데 개구쟁이처럼 여기저기 저보다 더 신나게 뛰어 다니세요. 또 제 말은 뭐든 다 들어주시죠.”라며 슬며시 웃는 창영이는 KT의 직원인 아버지가 더없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는 말도 내놓지 않았다.

중등콘텐츠 : <http://7wisehome.kr>  
문의전화 : 1577-7111(7wise)

서부지방본부 인천법인사업단지부  
건설팀지원부 신석진 조합원 자녀







# 만화로 보는 타임오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7월 1일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시작되었고 노동부의 강행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서 최대 쟁점은 타임오프입니다.

타임오프제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공동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파업들을 강행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동자의 편의시설을 축소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코사라라릉~**

가장 기반이 되는 법은 단결권이고, 단결권의 필요 조건이 바로 노조전임자입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근본적 문제는 노사 자율로 정할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있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반대로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교섭 제약과 노조 전임자 축소는 노조조직력을 더욱 추락시키고 노조의 근로자 대변기능을 크게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임오프제를 구실로 전임자의 노조활동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KT노동조합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시행에 보다 전문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일까, 퇴직연금일까? 정답은 ‘노후보장’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10>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0세다. 반면에 한국 기업의 정년은 보통 53~58세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0세는 돼야 한다. 정년까지 쉬지않고 일을 했더라도 2~7년의 '돈벌이 공백상태'가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LG경제연구원은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55~75세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옳진 데 덮친 격이다. 돈이 없는 시기에 돈을 가장 많이 써야 한다니 말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나이 든 노동자들이 기댈 곳은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밖에 없다. 즉,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로 많게는 20년 이상을 버텨야 한다.

## ●●●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 시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인 퇴직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된 뒤 점차 확대됐다. 89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올해 12월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적용 50년 만에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면 근속연수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서 수급권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이 퇴직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지급여력이 떨어진다. 장부상 사내유보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다 보니 막상 노동자가 그만두면 줄 돈이 없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중 80~90%가 임금체불 사건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퇴직금 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지만 회사가 망해 버리면 도리가 없다. 임금채권보장 제도는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보장해 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보험(98년)과 퇴직신탁(2000년)이다. 그러나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적 책임 의무가 없는 데다 적립기준도 없고, 직장을 옮길 경우

통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급여 제도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형식적이거나 국민연금(공적연금)과 개인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 등 이른바 '3층 보장체계'의 외형을 갖췄다.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노동계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정부가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을 건드린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 ●●● DB형과 DC형, 그리고 IRA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더불어 퇴직금 통산장치의 하나인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다. IRA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 통산을 위해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적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DB형은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

용해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계속근로기간×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8.34%)을 개별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노동자가 운용하다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DB형과 DC형은 사용자와 노동자 입장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 DB형은 퇴직급여액을 산정해 예상 금액의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운용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전에 산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운용실적이 좋으면 추가 이익은 회사가 챙긴다.

DC형은 자금운용의 책임을 노동자가 진다. 사용자는 약정된 부담금(100%)만 내면 된다. 노동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자금운용 결과가 좋으면 DB형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DB형과 DC형 모두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직할 때는 IRA를 이용해 통산하면 된다. DC형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 ●●● “핵심은 안정적 수급”

노동계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급장치 마련과 노동조합의 퇴직연금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가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평균임금 보전 △1년 미만 단기노동자로 적용범위 확대 △세제혜택 확대 △노동자 동의절차 강화 △산별퇴직연금 도입 위한 법적환경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ESG연구센터 소장)는 지난 5월 발표한 논문(퇴직연금 시장실태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 : 노동조합을 위한 함의)에서 △퇴직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감시장치가 존재하기 어렵고 △연기금 지배구조상 이해갈등의 가능성이 중층적이고 다양하며(DB형의 경우 연금 출연자

인 기업주와 연금 수익자인 노동자의 이익충돌 가능성 존재) △시장규율이 부재하며, 가입자 혹은 급여자들의 대표성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은 곧 해결책이다. 예를 들면, 정부 의도대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면 퇴직시 산정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임금피크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면 된다. 퇴직연금 운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금이사회나 연금감독위원회 설치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DB형은 사용자의 사회 의무적립비율이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적립비율을 DC형과 같이 100%로 맞추면 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퇴직연금(특히 DC형) 도입에 따라 노동자가 연금 투자자로 나서 수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투기금융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기존 퇴직금 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제도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

'반대' 보다는 '개선'을 해야 할 때다. 노동계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간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박운

※ 외부 인사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육현우 정의국장, 장민철 교육홍보국장, 한미라 여성국장, 남기태 조사통계국장, 정지국 충북지방본부 위원장, 차용남 조직국장, 박상순 복지후생국장, 신현진 사무국장

## 충북지방본부는

**1박2일 이다!**

충북지방본부는 '1박2일' 이다! 한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 이 충북지방본부라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목조목 따져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의 출연진들처럼 끈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작지만 탄실한 조직으로 일당백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도 그러하다. 1박2일이라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야 말 것 같은 눈빛까지, 웬지 그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불끈 솟는다.

상반기에 3회 정도 노사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노사화합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입니다.

## 1박2일



\_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청주에 위치한 충북지방본부를 찾아갔다. 정지국 충북지방본부 위원장을 비롯해 차용남 조직국장, 신현진 사무국장, 육현우 정의국장, 장민철 교육홍보국장, 남기태 조사통계국장, 한미라 여성국장, 박상순 복지후생국장 등 간부 8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짐통 같은 더위와 바쁜 업무 와중에도 제천, 충주, 진천 등에서 먼 걸음을 마다않고 달려와 준 것이다.

'충북지방본부는 네모(ㄹ)이다' 라는 문제를 내니 '작지만 강하다', '가족', '하나', '1박2일' 등 다양한 답변이 줄줄이 쏟아진다. 지난 1992년 충청사업본부에서 충북사업본부로 분리됨에 따라 충북지방본부는 박봉래 초대위원장을 시작으로 5~8대 이창환 위원장, 9대 이성기 위원장을 거쳐 현재 10대 정지국 위원장에 이르고 있다. 조합원 수는 13개 지부에 613명. 다른 지방본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조합원들의 유대와 단합은 공고하다. 작은 만큼 행동은 더욱 기민하고, 끈끈한 우애가 담긴 가족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때문이다.

\_ 정 위원장은 "과거 두세 사람이 하던 일을 요즘은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본부에서뿐 아니라 조합원들 사이에도 가족처럼 서로 돕고 다독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곳 충북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충북 지역 출신이라는 것도 충북지방본부를 하나로 묶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신 사무국장은 "거의 97~98%에 가까운 이들이 이곳에서 나고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어서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들일 것"이라며 "단점도 있겠지만 단결하는 힘만큼은 어느 지역 못지않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본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조합원들과의 호흡이다. 위원장을 비롯해 전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 발품을 팔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 위원장의





“과거처럼 자리만 지키는 조합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무관련 교육이나 회사의 복지제도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우 주 1, 2회 정도 지부 순회를 하면서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고, 함께 일도 거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애쓰고 있다. 한 여성국장은 “정 위원장은 ‘비타민’과 같은 존재이다.”라며 “우리 몸에 비타민이 필수적인 것처럼 업무 현장, 회식 자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과도 동반자로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쌓고 있다. 충북지방본부 1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모토가 ‘일하는 노동자’였다. 사측에 건의해 ‘요금 컨설팅 교육’을 받는 등 조합 활동뿐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차 조직국장은 “과거처럼 자리만 지키는 조합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무관련 교육이나 회사의 복지제도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안정된 노사문화의 구현과 간부의 역량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하반기로 접어든 요즘 충북지방본부는 날이 치열해지는 업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 타 기관 노동조합과 유대 관계를 쌓고, 제휴를 통해 KT의 인지도를 높여 마케팅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3회 정도 노사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노사화합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Interview 충북지방본부 정지국 위원장

## 회사와 조합원 모두에게 신뢰를!

1992년 입사한 정지국 위원장이 노동조합에 헌신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8대 집행부 선거가 있을 때였다.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결국 그가 지지했던 지부장 후보가 당선되었고, 당시 정 위원장은 조직부장의 자리에서 본격적인 조합 활동을 벌였다. 2003년 가을에는 당시 서청주 지부장이 퇴직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선 지부장으로 성실히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합활동에 열정을 바쳐 활동한 결과 2008년 충북지방본부 위원장에 당선됐다.

정 위원장이 조합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회사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의 신뢰이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있어야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10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조합 간부들도 무언가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동반자로서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충북지방본부 간부들은 많이 바쁩니다. 조합 활동이 30~40% 정도라면, 70% 정도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컨설팅 교육’ 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와 조합원 모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 현재 노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KT 노동조합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초석을 잘 다져서 다음 집행부의 짐을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사’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다면 노동조합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다면 노동조합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 바다처럼 너럭한 부산지방본부 통영지부

왼쪽부터 최행문 사무부장(대의원), 차윤혁 복지부장, 신중수 조직부장, 백권춘 지부장, 김혜옥 여성부장, 김성곤 조사통계부장, 김강섭 교육홍보부장

\_ 창문 너머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탁 트인 산과 아기자기한 마을이 한 눈에 들어오는 통영지부 사무실. 까무잡잡한 피부, 해맑은 미소, 사람들 역시 바다를 닮았다. 현재 백권춘 지부장과 7명의 부서장, 42명의 조합원이 이곳을 이끌고 있다.



더운 여름햇살 아래 살갑게 반짝거리는 물결, 스물스물 바람을 타고 오는 비릿한 갯내음, 두둥 쿿전을 간질이는 뱃고동 소리, 바다는 늘 넉넉한 품으로 일상에 지친 도시의 사람들을 맞이한다. 시리도록 푸른 바닷길을 따라 채 10분을 달렸을까. 통영지부다. 선명하게 박힌 KT로고가 마치 고향을 찾은 듯 유난히 포근하고 살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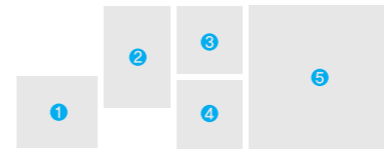
\_ 통영은 소규모 도서가 산재한 곳이라 모두가 1인 2역을 거뜰히 소화해야 한다. 맑은 날 곳은 날 할 것 없이 배 타고 섬에 들어가는 일이 잦기 때문에 AS에서 개통, 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통영지부에서 관할하는 섬만 54개. 현재 한산도, 옥지도, 사랑도 3곳에만 주재원이 배치되어 있어 통영 시내에서 경남해안 일대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지부장을 중심으로 부서장과 모든 조합원의 결속력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방대한 업무처리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_ 통영지부는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기·비정기적으로 노사간담회와 팀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조출한 규모 덕택에 일상적인 소통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었다. 백 지부장은 출근과 함께 전 조합원의 건강상태와 애로사항을 점검,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운영에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의 각종 기념일도 메일과 안부전화로 손수 챙기고, 지부장, 지사장, 팀장들이 매달 생일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도 빼놓지 않는다. 현장인력이 부족할 때면 신속하게 달려가 근무를 지원하는 등 때로는 조합원들의 가족으로, 때로는 손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합원들과의 연대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내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현재 사내 족구모임과 탁구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주말이면 집행부를 중심으로 통영시 산양면 일주도로와 수륙터 일대에서 MTB를 즐기고, 산행대회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끈끈한 의리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통영지부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 눈과 입 호강하는, 통영으로 오이소!

유치환과 김춘수, 박경리, 윤이상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의 고향,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섬과 때 묻지 않은 산하,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통영의 경치는 가히 메마른 감성도 깨울 만치 매력적이다. 언제고 다시 가고 싶은 곳, 만일 거제수련관에 간다면 통영을 꼭 들여다보자.



① 불로초도 잊게 만든 환상의 섬 '소매물도 등대섬' ② 전망이 끝내줍니다! '미륵산 케이블카'  
③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절경과 추억 '이순신 공원' ④ 바다 밑 한번 걸어보실랍니까?  
'통영해저터널' ⑤ 충무공의 정기 서린 섬자락을 걷는 맛 '한산도'

## 소매물도 등대섬

통영항 남동쪽 26km 해상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옛날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의 신하가 불로초를 구하러 가던 중 그 아름다움에 반해 '서불과차'라고 새겨놓았다는 글썽이굴과 형제바위, 용바위, 부처바위 등 바위 입상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망태봉에서 보이는 푸른 초지로 이루어진 섬 위로 하얀 등대섬의 풍경이 그림 같다.

## 미륵산 케이블카

해발 461m의 미륵산에 설치된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상부정류장에 도착하면 약 400m의 산책데크가 미륵산 정상까지 설치되어 있다. 미륵산은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일본 대마도, 지리산 천왕봉, 여수 돌산도까지 보일 정도로 전망이 탁월하다. 안전성이 강화된 2선식 곤돌라로 왕복티켓은 성인 9,000원, 소인 5,000원이다.

## 이순신 공원

망일봉 자락에 조성된 이순신 공원에 오르면 한산대첩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통영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특히 바다로 이어져 있는 오솔길은 탁 트인 바다풍경을 즐기면서 산책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고,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 통영해저터널

통영시 당동과 미수2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로 2005년 9월 4일 등록 문화재 제201호로 지정된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어민의 이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두 지역 간 거리 단축을 위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투입된 인력과 자재가 우리 민족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 한산도

섬 전체가 200m 안팎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한산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발점이자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한산도대첩이 있었던 곳으로, 이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영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지은 제승당(사적 제113호)이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마을 곳곳에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섬 풍경을 만날 수 있다.

## 동피랑 마을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 뒤편 언덕에 있는 마을이다. '동피랑'은 동쪽벼랑이라는 뜻으로,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마을에 오르면 형형색색의 벽화들을 만날 수 있다. 원래 통영시에서 낙후된 마을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통영의 한 시민단체가 벽화공모전을 열어 낡은 담벼락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멋들어진 산과 바다에 흠뻑 취하셨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바야흐로 입이 즐거울 차례! 충무김밥, 꿀빵, 졸복지리, 시락국밥, 굴밥, 도다리썩국, 명게비빔밥... 정말이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황홀한 맛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곳이 또한 통영이다.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힘든' 통영의 대표 맛집 4곳을 소개한다.

### 원조동보할매김밥집

충무김밥, 배에서 먹어야 제맛이라카이!  
충무김밥은 원래 뱃사람들을 위해 탄생했다. 오랫동안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보관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밥과 반찬을 따로 썬 데서 유래했다. 맨밥을 김에 말아 매콤한 무김치, 오징어무침과 함께 먹는데 60년의 전통이 깊게 배인 원조의 맛이 참으로 별미였다. 통영에서는 섬을 찾는 사람들이 배 위에 용기종기 모여앉아 충무김밥을 즐기는 풍경도 흔히 볼 수 있다. 고소한 참기름향이 물씬 풍기는 무침이 넉넉하게 담겨 나온다.

주소 : 통영시 중앙동 129번지 3호  
전화번호 : 055-645-2619

### 봉수골

중독성 강한 매콤쌈쌀한 해산물찜 미더덕의 실체를 아는가? 우리가 먹었던 미더덕, 알고 보니 '오만 데' 붙어산다고 이름 지어진 오만둥이였다! 봉수골에 가면 진짜 신선하고 맛있는 미더덕과 아구를 찜으로 만날 수 있다.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입안 곳곳에 향기롭게 퍼진다. 육질이 탱글탱글한 아구수육도 별미. 각종 화초와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세련된 가게에 앉아, 시원한 동치미와 깔끔한 밀반찬에 동동주 한잔 곁들이면 카! 천국이 따로 없다.

주소 : 통영시 봉평동 296번지 1호  
전화번호 : 055-645-4215

### 만성복집

속이 후련해지는 깊이가 다른 국물 맛 매운탕이 온갖 양념과 고춧가루로 맛을 낸다면 지리는 생선자체를 푹 끓여 우려낸 국물로 시원한 맛을 낸다. 갓 잡은 신선한 졸복이 풍당 담긴 졸복지리. 만일 해장을 위해 찾았다면 온몸 가득 깊숙이 전해지는 아찔한 시원함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래, 이 맛이야! 한 상 가득 차려나오는 맛깔난 밀반찬에 뭐 부족한 거 없냐는 넉넉한 인심이 더해지는, 언제라도 다시 찾고 싶은 맛집이다.

주소 : 통영시 서호동 177번지 65호  
전화번호 : 055-645-2140

### 오미사꿀빵

꿀빵, 늑장 부리면 맛도 못봐에~ 오미사? 별 뜻은 없다. 당시 옆 가게가 오미사세탁소였던 터라 여고생들이 오미사 오미사 하고 불렀고, 그 후 세탁소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꿀빵집 이름이 됐다. 더위에도 잘 상하지 않고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불러 뱃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추억의 간식거리. 팔이 든 딱딱한 도너츠에 꿀을 발라 만든 달콤한 꿀빵은 하루에 만들어 놓은 양만 판매하고 문을 닫는다.

주소 : 통영시 항남동 270번지 21호  
전화번호 : 055-645-3230

### interview \_ 통영지부 백권춘 지부장

한 발 앞서 '읽고' 가장 먼저 '읽다'

고성에서 태어나 지난 1984년 통영으로 터전을 옮긴 백권춘 지부장은 올해 입사 22년째를 맞고 있다. 1994년 5대 집행부의 홍보부장, 6대 대의원을 거쳐 지난 해 10대 집행부의 선장을 맡은 그는, KT 노동조합 판에서 이른바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고, 자신은 뭘 해야 할 지 동물적으로 안다. 하지만 여전히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일일이 점검하고 살핀다. "늘 한 발 앞서 조합원의 생각을 읽고 헤아리시죠. 든든하고 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모든 조합원의 공통된 평가다. 산행 후 술 대신 웃음을 하고, 몇 명 안 되는 여성조합원을 위해 출라후프를 함께 돌리는 아이디어도 조합원을 내 가족처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나왔다.

그는 "조합원의 생각을 대변함과 동시에 모두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과 연대를 위한 당연한 임무죠."라고 말한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선 늘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힘든 일도 가장 먼저 떠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탁월한 리더십과 현장경험, 유비무환의 혁신적인 면모, 관습을 과감히 돌파하는 개혁 의지, 신속 정확한 개선책 마련 등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한 조합원들의 애정은 한결같다.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객이 아닌 '사람'을 만납니다

충북지방본부 남청주시부 고객컨설팅팀 전영민 조합원



●

\_ 전영민 조합원이 KT에 입사한 것은 지난 95년 8월이다. 대학시절 체육교육과에서 테니스를 전공한 후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마침 KT에서 테니스 특기가 있는 사원을 특채로 뽑은 것이다. 입사 후 케이블을 정비하거나 전화를 수리하는 등 기술부에서 일했다. 5년 후, 영업을 한 번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을 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사람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팔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테니스와 5년 경력의 기술 외에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일은 쉽게 풀려나갔다. 그간 테니스 동호회에서 줄곧 활동했던 탓에 공무원부터 개인사업자들까지 각계각층의 사회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까닭이다. 그 폭넓은 인맥이 영업으로 이어졌고,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어 점차 영업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그도 수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렸다.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전영민 조합원은 “기본적인 인맥이 있어야 영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들고 고객을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영업맨’이라고 한다. 하지만 충북마케팅단 남청주고객컨설팅팀의 전영민 조합원은 ‘영업인’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영업이란 고객을 만나기에 앞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어감을 주기 때문이다.



●

수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깨닫고부터는 동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불만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주었죠. 우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방문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판매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죠.”라며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_ 전 과정의 또 다른 영업철학은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그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2003년 청주의 한 교회에 솔루션 상품을 판매할 때였다. 청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기에 그곳만 성공하면 다른 교회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었다. 그러나 미팅을 7~8번이나 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일로 영업을 하는데 다소 위축이 되더군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교회에서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깨달았죠. 단순히 실적이 필요해서 상품을 내밀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_ 영업인으로서 앞으로 10년 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전영민 조합원의 대답은 지금이나 10년 후나 당당한 영업인으로 우뚝 서는 것이란다.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고, 영업을 하면서 KT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그것이 저의 실적으로 되 돌아오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의 고객을 향한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는 KT 노동조합 충북지방본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지국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현장에 찾아가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 다음 약속 장소를 위해 잔 발걸음을 옮겼다.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다.

# 스물여섯 개의 섬에 활력을 불어넣다

부산지방본부 통영지부 도서통신팀 공태효 조합원



●  
\_한 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옥상 위, 셋톱박스과 노후된 안테나 교체작업이 한창이다. 송글송글 땀방울이 실 새 없이 맺히고 흐르기를 이십여 분, 주파수 점검과 함께 드디어 세팅이 끝나자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_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하포부락 80번지. 뱃길로 30분, 다시 차로 십여 분을 달리면 작은 사택이 딸려있는 KT 통영지점 하소분기국사를 만날 수 있다. 충무공의 정기가 서려 있는 한산도 섬 자락이다. 통영지부 쟁의부장이자 도서통신팀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태효 조합원, 그가 홀로 그곳에 있었다. 평상시는 주재원인 박희중 조합원이 이곳을 지키고 있지만, 교육으로 섬을 잠시 떠나 오늘은 그가 그 자리를 지킨다. 통영시 관할 26개 도서, 공태효 조합원이 홀로 책임지고 있는 섬의 숫자다. 그나마 한산도와 욕지도, 사랑도의 경우 항시 주재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부재중일 경우 그마저도 그의 몫이다. 선로개설업무 2년을 빼면 자그마치 19년째 도서통신팀을 지켜오고 있다.

공태효 조합원에게 섬은 그 자체로 가족이고 삶이다. 스물여섯 개의 섬을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불철주야 중횡무진하는 우직한 일꾼, 통영지부 도서통신팀을 든든하게 이끌고 있는 그를 한산도에 위치한 어느 고객의 집에서 만났다.



배달도 드문 일이 아니죠.” 하루 평균 3~4군데의 섬을 순회하는 그로서는 봉사와 희생정신 없인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가구 수가 적은 섬은 칠순이 훌쩍 넘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밤중이고 새벽이고 오라면 걱정이 돼 가지 않을 수도 없다.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실제로 위독한 노인이 호출을 해 부리나케 달려간 적이 있는지라 더욱 그렇다.

“숙명인 것 같습니다. 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자 생각했지요.” 공태효 조합원은 이제는 하루라도 섬을 찾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말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묵묵히 섬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섬사람들이 가족이요, 벗이 됐다. “대부분 섬에 거주하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그저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습니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 담담하게 진심이 묻어난다.

\_ 통영지부의 백권춘 지부장은 그를 가리켜 ‘진정 KT의 위상을 우직하게 세상에 전하는 사람’ 이라고 했다. 어느 이름 모를 노인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유유히 들려올 것만 같은 섬마을, 포동포동한 닭이 자유로이 골목길을 노니는 그곳에서, 밤급 단장을 마친 새하얀 안테나가 빙그레 미소 짓고 있다.

\_ 많은 섬을 돌아다니다 보니 회선 개통에서 복잡한 수리까지 만능일꾼이 됐지만, 섬 주민들의 소사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전기가 고장 나면 전선도 점검하고, 컴퓨터도 수리하고 생필품





# 相 存 共 生

## 창조적 노사문화의 키워드, '상생과 공존'입니다



### 전문 IT 서비스 회사, 노동조합은 '새출발'

\_ 지난 2008년 8월 KT IT본부로부터 분리, 설립된 KTds는 KT그룹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IT 통신 서비스 노하우를 보유한 IT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현재 IT 시스템 설계, 개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및 사용자 지원업무에 이르기까지 KT그룹의 전사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개방형 및 대용량시스템 구축(ICIS), 세계 최초 MS .NET기반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NeOSS) 등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KTds는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 KT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면모에 비해 새로운 회사의 노동조합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08년 분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이 출범했지만, 분사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불신을 피할 수 없었다. 조합 참여율은 저조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초대 집행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비하여 초대집행부 전원이 총사퇴 함으로써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렇게 2009년 5월, 보궐선거를 거쳐 비로소 이철희 위원장을 필두로 지금의 집행부가 꾸려지게 됐다.

### 노동조합 정상화를 향한 상생과 소통의 발걸음

\_ "일단 집행부는 꾸렸지만 그야말로 막막했지요. 비전도 조합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작년 내내 사측과 각고의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철희 위원장의 얼굴에 회한의 미소가 감돈다. 바닥부터 시작된 노동조합의 목표는 어차피 하나였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윈윈하자는 것. 노사가 명백하게 상반된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언제 합의점을 찾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분기별 노사협의회만으로는 부족했던 시간은 수시로 대표이사를 찾아 시시콜콜한 것까지 토론하며 공백을 메웠다.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출범 4개월 만인 지난 해 9월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의 틀을 안정적으로 갖춰가고 있다. 또한 직원교육에서 각종 제도,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의점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발전적 노사관과 열린 경영,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 곧 직원의 성장이라는 노사의 마인드가 창조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 안정적 조합원 확보로 내실 다질 터

\_ 직원들의 사소한 애로사항에도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조합원의 수도 늘어났다. "현재 조합원 수는 461명입니다. 조합가입대상의 과반수를 겨우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타개책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사와

함께 신규 채용된 인원 중 신입과 경력을 합친 조합원의 비율이 현재 40% 정도라 서로의 융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지요." 이에 집행부는 '신·구의 조화'를 목표로 원활한 교류와 사내융화를 위해 본부와 팀별 교류 활성화 및 워크샵 개최, 백두대간 전 구간 완주행사를 비롯해 각종 체육행사, 동아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 시행하고 있다.

현 집행부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차기 집행부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 2년이 되지 않은 이 신생 IT기업이, 상생을 향한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어느 기업보다 명확하고 균형 잡힌 발걸음을 또박또박 내딛고 있다.



### interview \_ KTds노동조합 이철희 위원장

"IT 기업 노동조합의 미래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연상시키는 연두색 조끼, 이제 갓 출범 2년째를 맞는 노동조합의 파릇파릇한 희망과 열정을 상징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철희 위원장이 바라보고 있는 종착역은 타는 듯 이글거려던 여름햇살처럼 명확하고 강렬했다. "IT기업은 보통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지요. IT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50%수준의 조합원의 수를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그의 목표.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을 때면 형처럼 따뜻하지만, 협상테이블에 서면 늘 명확하고 날카롭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유명하다. "외유내강형이시죠. 함없이 부드러운데 보이지만 매사가 분명하고 정확하세요!" 조합원들의 신뢰와 존경이 두터울 수밖에 없다. "회사가 발전해야 직원도 성장할 수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 집행부에 고맙고 또 미안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힘냈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소임은 '봉사'와 '희생'이다. 한 명 한 명의 바람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가장 낮은 자세로 조직구성원들을 섬기겠다는 그에게 '희망'이 될 직원들, 부디 헤쳐 모이시길!



# 소셜 미디어, 너는 누구냐?

\_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화제다. TV나 신문 등 기존의 미디어를 뛰어넘는 신속성과 강력한 전파력으로 자살을 예고한 사람을 찾아내는가 하면, 무심코 올린 짤막한 글 한 줄이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의견을 공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온라인 툴이다.

소셜 미디어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매스 미디어가 일방적 '독백' 이었다면 소셜 미디어는 '대화' 로 볼 수 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가운데 대표 격은 역시 트위터. 트위터는 200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마이크로 블로그 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다. 최대 140자의 짧은 글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_ 최근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 폰 열풍과 함께 트위터의 인기도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스마트 폰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트위터의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40자로 제한된 단문 서비스라는 점이 웹 보다 모바일에 더욱 최적화 된 서비스인 셈이다. 실제 트위터 이용자 중 웹을 통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 ● 새로운 정보교류의 장 - 기업과 고객의 의사소통

\_ 현재 전 세계 트위터 이용자 수는 105,779,710명(2010년 7월 기준). 국내 가입자만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트위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짧은 글을 통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팔로어(수신자)들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점이 개인을 넘어 기업과 기업인, 정치인에게도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드림위즈의 이찬진 대표,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은 트위터에서 이름난 인기 CEO다. 이찬진 대표(@chanjin)는 트위터 열혈 이용자인 동시에 한글 트위터(twitterkr) 서비스 제공자이기도 하다. 한글트위터는 트위터 서비스가 영문으로 제공되어 한국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한 한국어 클라이언트 서비스다. 박용만 회장(@Solarplant)은 소탈한 회장의 모습으로 인기가. 트위터 상에서 '대장님' 으로 불리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그가 올린 '뽀마마' 시리즈와 '드라마 속 회장님' 시리즈는 많은 화제를 낳았다. 최근 트위터 대열에 합류한 정용진 부회장(@yjchung68)도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_ 트위터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떠오르자 기업 차원에서 트위터를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트위터 기업계정은 150여 곳에 이른다. KT(@ollehkt)는 아이폰 출시 과정에서 화제가 되면서 기업 트위터로서는 드물게 팔로어 숫자가 3만 3천명을 넘어섰다. 기업들은 트위터를 통해 소비자들과 친근하게 호흡하면서 불만사항이나 의견들을 재빨리 처리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 이찬진 대표(@chanjin)
- 박용만 회장(@Solarplant)
- 정용진 부회장(@yjchung68)
- 버락 오바마(@BarackObama)
- 노회찬대표(@hcroh)
- 관화가 임옥상(@oksanglim)
- 작가 이외수(@oisoo)
- KT(@ollehkt)





〈뒷줄〉 홍가희(미디어본부), 허은셀(KT커머스), 임선해(경기남부-분당), 최우연(퇴직), 최윤석(서울남부-영업지원), 조성옥(퇴직), 이병욱(KT커머스), 성연수 (서울남부-영동), 오기민(컨버전스-WIBRO) 〈앞줄〉 기성열(IMO운용), 이규설(출고객전략), 조다영(광고고객), 구도윤(개인고객), 김규호(IP/플랫폼운용), 방재혁(서울남부NSC)

# Shall We Play Classical Music?

학창시절 잠시 악기를 잡아본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에 대한 열정만큼은 프로 연주자 못지않은 이들이 있다. 'KT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구도윤 조합원과 홍가희 조합원 이야기이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시원찮은' 실력이지만, 단원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화음을 튜닝해나가는 과정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희열이다. 그들은 요즘 만나는 이들마다 손을 잡고 이렇게 묻는다. "Shall We Play?"



영동지부 성연수 단장

## 문화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KT 필하모닉오케스트라

\_ 2006년 10월 성연수 단장은 사내게시판에 음악동호회를 만들자는 글을 올렸다. 그의 음악 경력은 고교시절 관현악단에서 첼로 연주자로 활동했던 것이 전부. 그렇지만 협연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KT의 각 그룹사에서 두 달 만에 80여 명이 모여들었다. 성 단장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미디어콘텐츠그룹으로 도약하는 KT그룹 사원들의 문화적 토대를 만들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달한다.'는 모토를 세우고, 연습에 돌입했다. 그러길 1년여, 2007년 12월 1일, KT 분당 본사 옆 계원예술고등학교 벽강예술관에서 '화음, 배움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창단연주회를 열었다. 한 곡 한 곡 구슬땀을 흘려가며 화음을 이뤄냈고, 첫 무대에서 맛보았던 희열은 아직도 단원들의 가슴 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2008년 11월 1일에는 '두 번째 걸음, 도약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무대에 올렸다. 780여 석에 이르는 객석이 가득 찰 만큼 성황을 이뤘다. 문화적인 사랑을 실천한다는 창단 모토에 맞춰 팸플릿 판매 수익금 전액을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KT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해 사내 사정으로 접을 수밖에 없었던 제3회 정기연주회를 최근 다시 준비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단원은 약 250명이며, 이 가운데 40~50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기연습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자양동 강북지방본부 건물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창단 시절부터 지휘를 맡아온 KBS 교향악단의 제2바이올린 부수석 방영호 씨가 연습지도와 지휘를 한다.







### 연주에 몰입하면 스트레스가 싹!

\_ 잠시 연습을 쉬는 시간에 개인고객부문 사업지원팀의 구도윤 조합원을 만났다. 그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소 생뚱맞다. 4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웬지 피아노가 그렇게도 싫었다. 어찌나 피아노 학원 가기가 고역이었던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출을 하기도 했다. 물론 하루 만에 돌아왔지만. 가출 사건 이후 어머니와 합의(?)를 본 것이 일주일 반으로 나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어린 마음에 피아노를 일주일 반에 3일만 배워도 된다는 것이 기뻐서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이후 중학교 때까지 피아노와 함께 바이올린을 배웠죠. 하지만 제가 원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서 실력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위해 악기를 손에서 놓았고, 처음에는 귀찮은 것을 떨쳐낸 기분이었다. 그러나 방 한구석에 놓여 있는 바이올린을 볼 때마다 못 다한 사랑처럼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악기를 놓고 나자 비로소 그 참맛을 알게 된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오케스트라 서클에서 활동했고, KT에 입사하고 지난 2006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저 없이 가입했다. 다른 단원들에 비해 무대에 선 경험이 많은 편이지만 아직도 공연 직전에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낀다. “오랜 시간 연습한 것을 100% 보여줄 수 있을지, 관객들이 그간의 노력을 알아줄지 항상 걱정해요.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 연주에 몰입하면 관객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연주가 끝나 있곤 하죠. 공연이 끝나고 나면 공허감 때문에 한동안 방황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연습과 공연을 하면서 연주에 몰입하는 순간에는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려 또 다시 악기를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고객부문 사업지원팀 구도윤



구도윤 조합원과 홍가희 조합원은 오늘도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독주가 아닌 협주를 통해 서로 보듬고 이끌고 받쳐주는 오케스트라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때문이다.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같이 연주하실래요?”

### 각 계열사의 폭넓은 인맥은 덤이죠!

\_ 반짝이는 플루트를 들고 있던 미디어본부 응용사업담당 CUG테스크의 홍가희 조합원은 관현악단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요즘 유행하는 댄스그룹들에 한참 열광할 만큼 앳된 얼굴이지만 많은 선배들과의 협연은 회사를 다니는 즐거움을 두 배로 늘어나게 했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처음 입단을 위해 오디션을 볼 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악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악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KT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협주는 처음이어서 어려움도 많지만, 음악이 풍요로워지는 느낌과 연주자들 사이에 오고가는 음악적인 교감에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플루트를 시작했다. 당시 옆집에 플루트 선생님이 살고 있어서 항상 플루트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작은 악기에서 울려나오는 부드럽고 청아한 소리는 소녀로 하여금 플루트 연주자를 꿈꾸게 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 적성 수업시간이 있었는데 주저 없이 플루트반을 선택했다. 그렇게 3년 동안 플루트를 배웠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별다른 기회가 없었어요. 올해 KT에 입사하고 사내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보잘 것 없는 실력이지만 플루트에 대한 애착과 협주에 대한 동경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2010년 신입사원인 그녀가 연습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곳 대강당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KT의 각 계열사는 물론 퇴직하신 분들까지 많은 선배님들을 한 자리에서 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음악적인 부분은 물론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궁금중들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친절하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따뜻한 충고도 아끼지 않으시죠. 협연의 즐거움과 폭넓은 인맥까지, 신입사원으로서 이만한 사내 동호회 활동이 없는 셈이죠.”



미디어본부 응용사업담당 홍가희

### < 가입방법 >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단원 모집 공고를 낼 때 신청하면 되며, 이외에도 포털서비스 파란의 KT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클럽 (club.paran.com/ktphil2006)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www.ktphil.org



#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 캠핑의 매력



직장인 홍상호씨는 주말이 더 바쁘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 때문이다. 힘들게 짐을 꾸렸다 풀고 밖에서 한뼨잠을 자는데다, 돌아오는 길의 교통체증까지 감수하는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유난스럽다고 핀잔이다. 하지만 홍씨는 캠핑을 시작하고부터 삶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무엇이 홍씨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직접 캠핑을 떠나보지 않고서는 캠핑의 참맛을 알 수 없다는 홍씨를 통해 캠핑의 매력을 파헤쳐본다.



\_ 캠핑은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등지에 텐트를 치고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이다. 최근에는 자동차(Auto)로 이동하여 야영(Camping)을 즐기는 오토캠핑이 캠핑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캠핑의 본래 의미는 '동지끼리 협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연 속에서 소박한 협동생활을 함으로써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캠프파이어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만 생각한다면 캠핑의 참맛을 알기 어렵다. 실제로 캠핑은 짐을 꾸리고 자동차로 이동하고, 야외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과 수고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캠핑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장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무엇이 사람들을 캠핑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일까?

## ●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_ 캠핑은 가족의 주말 풍경을 180도 바꿔 놓는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을 독차지하던 아버지가 믿음직하고 든든한 가장의 모습으로 바뀌고, 잔소리만 늘어놓던 어머니는 자상하고 너그러운 조력자가 된다.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있던 아이들이 부모를 도와 제 역할을 톡톡히 해 내는 모습은 의젓하고 대견하다. 부부는 또 어떨까? 잔소리와 게임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자 부부 간의 정도 새록새록 샘솟는다. 학교를 마치고 두 세군데 이상의 학원을 돌던 아이들의 행복감이야 두 말 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레저 활동 대부분은 남성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등산, 낚시, 체육동호회 등으로 남편 혼자만 바쁘거나, 주말은 남편의 유일한 휴식 시간으로 여겨졌다. 정작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갖지 못한 셈. 서로를 이해하거나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캠핑장에서는 다르다. 남편이 사이트를 구축하고 텐트를 치는 동안, 아내는 부엌을 마련하고 식사를 준비한다. 때로는 숨겨뒀던 요리 실력을 남편이 발휘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한몫을 거뜬히 해 낸다. 대자연은 그 자체로 놀이터고 학습장이며 선생님이다.

밖에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상추쌈에 삼겹살 하나면 산해진미가 안 부럽다. 캠핑의 묘미는 밤이다. 캠프파이어는 물론이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화로를 피우고 그 곁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밤하늘의 별 헤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밤이 깊어지면 서로의 체온을 난로삼아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가족이구나라는 행복감에 꿈결마저 감미롭다.

### ● 초보캠퍼를 위한 캠핑 A to Z

#### 장비 꾸리기

\_ 캠핑을 시작하려면 우선 방 역할을 하는 텐트, 거실 역할을 하는 타프,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 조리를 위한 버너와 코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야전침대, 침낭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야외에서 1박2일 이상의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많다. 보통 이상으로만 구비해도 300만~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하고 떠나겠다는 생각은 좋지 않다. 우선 창고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야영 장비를 꺼내 손질해 사용한다. 차츰 필요한 장비를 늘려 가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막는 지름길이다.



#### 캠핑 떠나기

\_ 국내에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캠프장은 100곳 정도. 그 중 50% 이상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시설과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계절에 따라 운영시간도 다르다. 초보자라면 캠핑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포털 사이트나 다음,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룹캠핑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선배 캠퍼들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오래 전부터 꿈꿔온 캠핑에 대한 열망과 용기만 있다면, 풍요로운 대자연이 우리 집 거실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다.

#### 수도권 인근 캠핑장

서울시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02-478-4079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	031-774-8133
서울시	난지캠핑장	02-304-0061	과천시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	02-500-7870
서울시	노을캠핑장	02-304-0061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031-336-0039
서울시	중랑캠핑숲	02-435-7168	가평군	유명산자연휴양림	031-589-5487
인천시	꾸러기체험학습장	032-566-0370	가평군	자라섬 오토캠핑장	031-580-2700
인천시	산장민박	032-746-3436	양평군	종미산자연휴양림	031-774-8552
인천시	삼별초 펜션	032-933-0400	남양주시	축령산자연휴양림	031-592-0681
인천시	영흥도유안캠프	010-7318-0078			

#### ● tip

캠핑관련 아이폰 무료어플



CampingMania-캠핑정보



CampingPro





# 든든한 아침, 거뜬한 하루!



\_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에 쫓기는 청소년과 20~40대 직장인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아침을 거르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 때까지 장시간의 공복 상태가 유지돼 우리 신체, 특히 두뇌에 큰 부담이 된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식습관이 반복되면 건강을 해치기 쉽다.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거뜬하다. 바쁜 현대인을 위해 간단 조리법과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아침 식단, 배달시켜 먹는 가정식 아침식사를 제안한다.

## ● 아침식사가 중요한 이유

\_ 아침식사는 신체 활동을 위한 기본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두뇌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의 주요 대사물질인 포도당이 뇌신경세포의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아침밥이 뇌와 배 모두를 채우는 셈.

적당한 아침식사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만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아침식사는 당뇨, 비만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예방의학센터는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에 걸릴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와 치매 위험성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아침식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허기진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폭식을 하기 쉽다. 위장과 뇌는 반복되는 결식 상태에 대비해

과식을 유도한다. 저녁에 과식하면 활동량이 적어 남은 열량이 체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다. 아침을 거르는 것과 저녁 폭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 간편하게 준비하는 아침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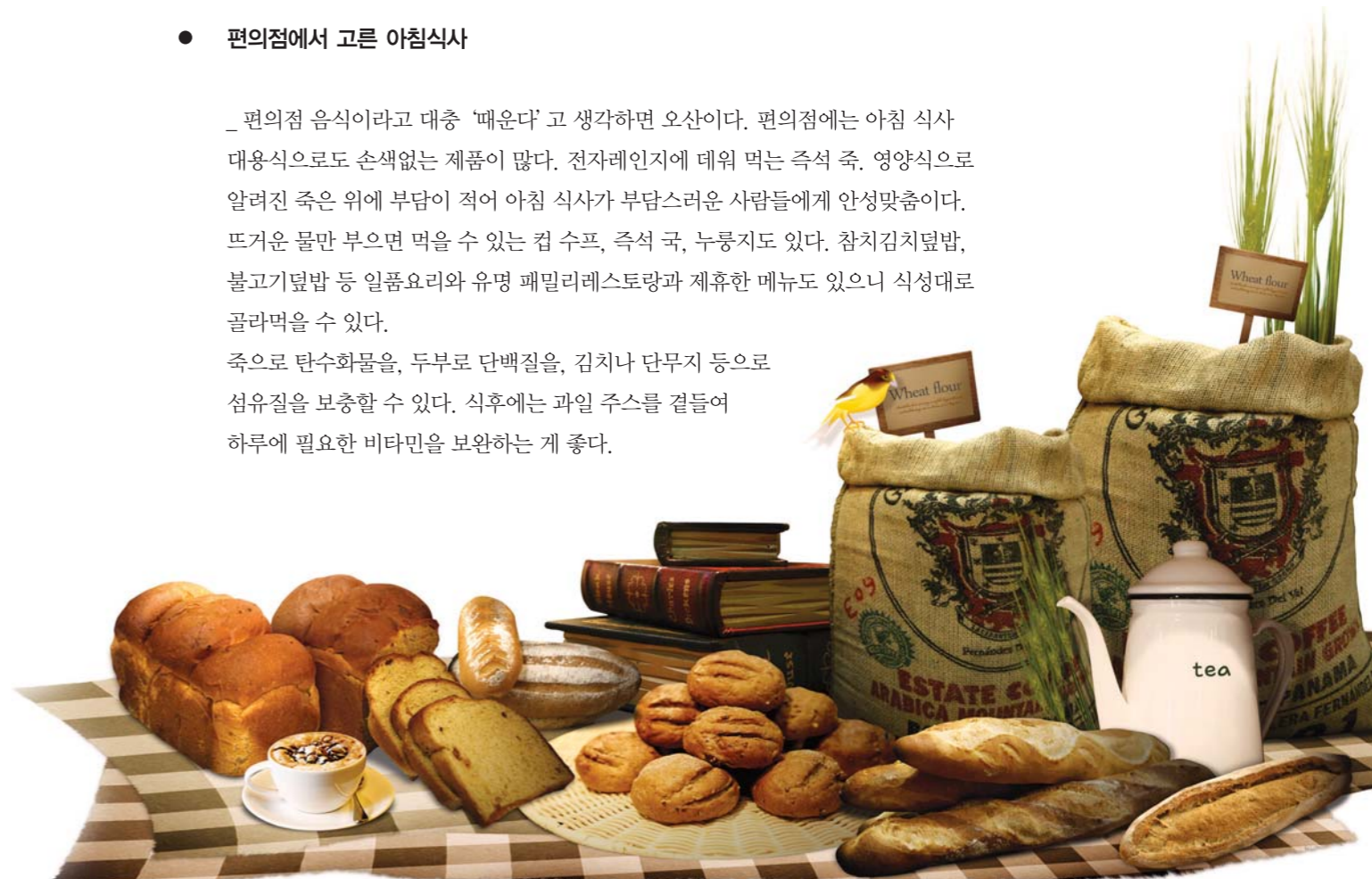
\_ 바쁜 아침 시간에 전통 한식을 고수하기란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때문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양식 아침식사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각종 곡물빵과 신선한 샐러드, 우유나 주스만으로도 한 끼 열량이 충분해 아침식사로 좋다. 빵은 섬유소가 많은 호밀빵이나 가공 정도가 낮은 곡물빵이 좋다.

이때 당분이 많은 과일잼보다 단백질 섭취를 보완해주면서 칼로리는 낮은 크림치즈를 곁들여 먹는 게 좋다. 크림치즈에 몸에 좋은 견과류 등을 섞어 먹으면 금상첨화! 샐러드 드레싱은 마요네즈보다 올리브유에 소금과 후추로 간한 것이 알맞다.

## ● 편의점에서 고른 아침식사

\_ 편의점 음식이라고 대충 '때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편의점에는 아침 식사 대응식으로도 손색없는 제품이 많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즉석 죽, 영양식으로 알려진 죽은 위에 부담이 적어 아침 식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 수프, 즉석 국, 누룽지도 있다. 참치김치덮밥, 불고기덮밥 등 일품요리와 유명 패밀리레스토랑과 제휴한 메뉴도 있으니 식성대로 골라먹을 수 있다.

죽으로 탄수화물을, 두부로 단백질을, 김치나 단무지 등으로 섬유질을 보충할 수 있다. 식후에는 과일 주스를 곁들여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을 보완하는 게 좋다.





# Voices of Readers

## 독자엽서 당첨자

구본욱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KT송파지사	박일용	부산시 동구 범일2동 KT정보통신센터
윤진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종합기술원	정영애	부산시 동구 범일2동 KT정보통신센터
이민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종합기술원	오동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KT전주지사
김건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종합기술원	정재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KT전주지사
서우영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종합기술원	김수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KT전주지사
김응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종합기술원	이지연	대전시 중구 태평2동
안경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수도권 무선마케팅단	김관식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서명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송은호	충북 제천시 명동
최지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오영권	강원도 원주시 학생동
박정훈	부산시 동구 범일2동 KT정보통신센터	신성훈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금산위성센터

■ [뽕] 소식을 위해 참신한 의견 주신 조합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소속본부	소속지부	이름
충남	중부넷운용단 천안NSC지부 남천안운용팀	박성환
전북	전북마단 남원지부 특별기동팀	서정식
강원	강북넷운용단 춘천NSC지부 흥천운용팀	이두형
제주	제주마단 제주N/S지부 교환팀	고동수



# PUZZ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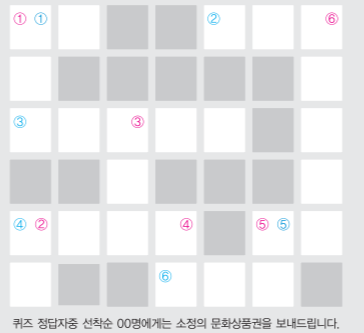
### 가로열쇠

-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 최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나라의 독립선언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해 국제사회의 정점으로 비화되고 있죠. 지난 2008년에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나라이름은?
- 메타볼릭 신드롬(metabolic syndrome)이라고도 하며, 각종 심혈관 질환과 제 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는 현상을 한 가지 질환군으로 개념화시킨 것
- 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
- 미국 뉴욕주(州) 뉴욕시(市)에 있는 지구로서 맨해튼(區) 북부에 위치해 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생활환경은 열악한 편이어서 1960년대에는 많은 범죄와 폭동이 발생한 이곳의 지명은?
-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또는 우리의 전통 음악을 공연하는 장소를 칭한다

### 세로열쇠

- 동해안 최대의 해수욕장. 원래는 강릉 경포호 안에 있는 누각의 이름이지요
- 경제용어로 시세가 거의 변동 없이 계속되는 일을 뜻하며, 비슷한 말로는 제자리걸음이다
- 증기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온 나라, 또는 국민 전체를 뜻하며, 여아의 구별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을 함침을 의미한다
- 뒹을 갈라 나눔. 또는 그 뒹. 다른말로 '뒹 나누기', '배정' 이라고 한다
- 크로스워드 퍼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퀴즈의 일종. 바둑판의 줄무늬처럼 줄을 굵고 짧은 글이나 단어를 기입하여 둔 데서 몇 개의 글자를 빼내어, 그 공백 부분에 글자를 넣어 완전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임이다

### 도전!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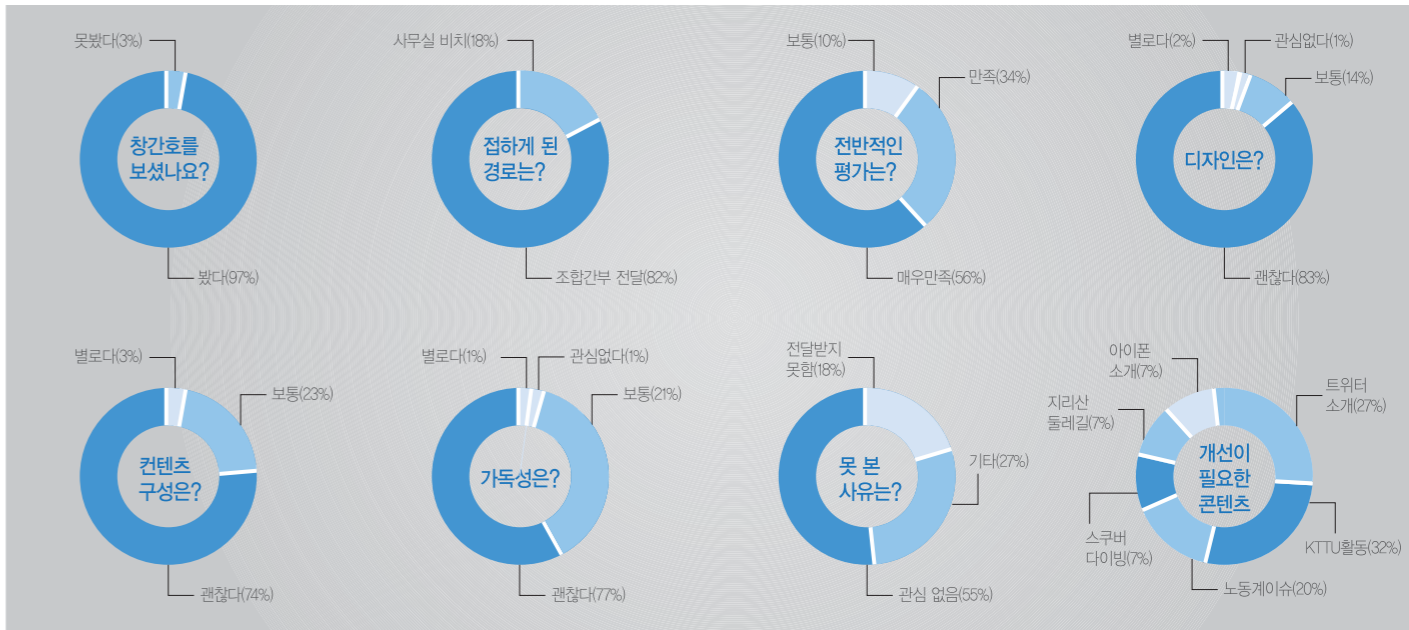
※ 독자엽서란에 퍼즐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 | 창간호 설문조사 |

- 총 설문응답자 : 341명
- 설문기간 : 2010. 6. 30 ~ 7. 13
- 책자형 노보 '뽕' 설문조사에 좋은 의견을 많이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뽕' 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비판을 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일, 일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낼 것입니다. 주변에 취재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뽕' 편집실에 보내주시신 응원 메시지가 큰 힘이 됐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 편집국 (mabin@paran.com)



### |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단위는 응답자 수)

